

# 연필선 더한 유화 진경산수 재해석

February 9, 2022 | 노형석 기자

Page 1 of 1

## 연필선 더한 유화 진경산수 재해석

문성식 작가, 부산서 신작전  
결재 그림 추상화된 모사 눈길

시커먼 암벽 사이 폭포수 쏟아지는 평음 이 그림에서 들린다.

진경산수와 대가 결재 정신(1676-1759)의 명작 《박연폭》의 마학이다. 1740년대 70대 노구를 끌고 개성 인근 박연폭포를 답사한 뒤 그림이 작품에서 결재는 장쾌한 폭포 소리가 사무지게 귀를 울렸던 기억을 추상적 표현으로 형상화한다. 먹을 꼼꼼하게 겹쳐 칠한 적묵법으로 폭포수 앞면 암벽을 더욱 짙게 칠한 반면, 물살 모양은 수직선으로 단순화시켜 대비를 극대화했다. 이런 구도 아래 폭포 소리가 울림은 절묘하게 시각화되어 감상객에게 보면서 들는 듯한 공간각적인 느낌을 안겨준다.

지난 10여년간 이야기 짓은 일상과 자연 풍경을 그림과 모사씩 뛰어난 구상화가로 입지를 다져온 문성식(42)씨가 결재 걸작들에 영향을 받은 신작들을 내놓았다. 지난달 21일부터 부산 망미동 보합화관 공간 예포(F)1964에 자리한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열고 있는 신작전 ‘살’을 통해 내보인 《강의 모습》 연작이다. 작품들은 결재의 진경산수 화풍을 추상적 풍경화, 작가의 행위가 육



문성식 작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새 연작 《강의 모습》의 일부본.

화된 풍경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설악산의 토왕성폭포, 울산바위, 포천의 기암, 총서경, 제주의 추상절리 등 풍경을 유화 화폭 위에 연필을 죽죽 그어 끌어내듯 묘사하거나 《박연폭》(만폭동) 같은 결재의 명작들을 유화 드로잉으로 묘사한 신작들은 구도의 세밀과 간간한 관찰에 기반한 작업 방식의 변모를 보여준다.

“수년 전 설악산 토왕성폭포의 모습을 보고 조형적 호기심을 느껴 시작했고, 지난해 전남수북비엔날레에 출품하면서 본격화한 판 연작인데요. 그림 배경엔 사랑하는 결재의 《박연폭》 그림이 자리 잡고 있어요. 추상화된 풍경화를 그리고 싶다는 욕망인데, 아직은 게 그림이 많이 많아요. 묘사에 몰입하지 않고 갈수록 단순한 형상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는데 무엇이 풍경으로 유효되는 길을 찾는 중이죠.”

그는 25살이던 2005년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에 역대 최연소 작가로 출품해 두각을 드러냈다. 추상과 설치작품, 미디어아트가 들쭉날쭉하는 미술계 흐름과 달리 작가 주변의 세상 풍경과 사람살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주력해 왔다. 2019년 개인전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유화 화폭에 연필로 굵기(스크래칭)를 하는 특유의 드로잉 묘사 방식은 선염과 번짐의 수묵 표현에 비해 순결적 제약 안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표현의 한계와 극복에 대해 고민하는 사제가 늘어난 것이다. 작가가 불혹의 나이를 넘기면서 원숙한 건너뛰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28일까지.

부산/울 사진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